

신호등

임상섭(시인)

하루가 열리는 조용한 새벽
먼 거리에서
교차로 신호등 깜박이고 있다
주의하라는 빛이다

청신호 켜져 있었던 적 있다
그렇다고 바르거나 편한 길만 아니었다
굴곡진 길이라도 겁 없이 달린 적 있다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살아 온 것
참 다행이다

앞과 옆 뒤도 돌아보며
쉬엄쉬엄 가라는 뜻 같기도 하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서두르던
어쩔 내 삶의 주의등 켜진지 오래이지 싶다

신호등은 도로에 설치해 교통 신호를 알리기 위하여 켜는 등을 말한다. 청색 등은 보행이나 주행이 안전하지만 적색등은 보행이나 주행을 정지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청색 등이라도 도로가 똑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굴곡진 길도 있다. 굴곡진 길에서 똑바른 길인 줄 알고 겁 없이 달린 적도 많았다. 별 탈 없이 살아온 것이 놀랍다.

신호등은 단순한 교통신호등을 말하지 않는다.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의 등이었다. 주위를 잘 살피며 조심해서 살아가라는 주의 등이 켜진지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허겁지겁했던 지난날들을 뒤돌아본다. 앞으로라도 조심해서 아무리 바빠도 신호의 지시대로 올바르게 안전하게 지켜야겠다. 나를 위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을 위하기도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윤 제 철)

시간을 멈추게 한 마취의 마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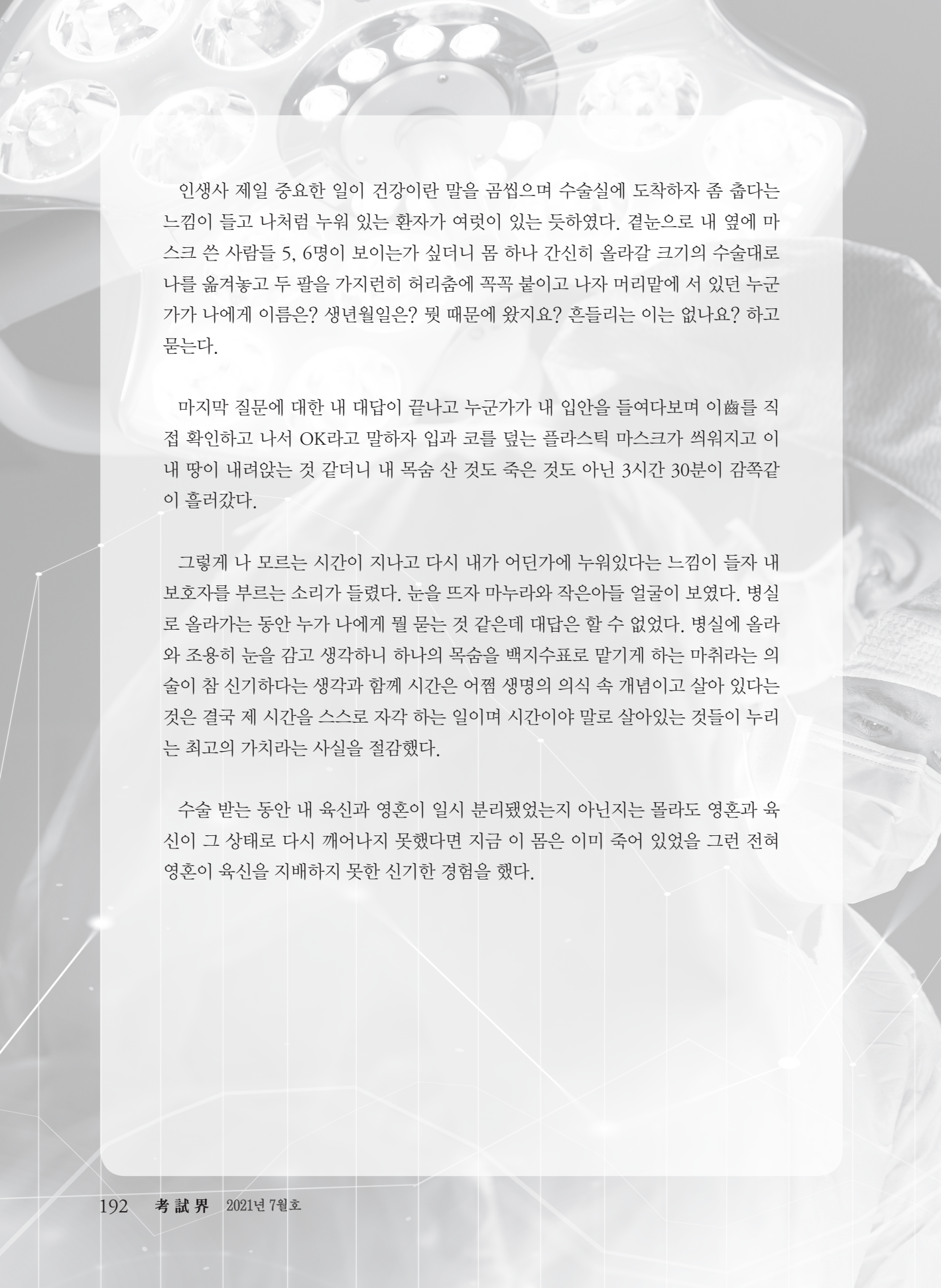
오 대 환(수필가)

생전처음으로 내 돈 내고 해본 올 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혹이 보인다고 하기에 6개월 후 조직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나왔다고 한다. 1차 검진결과를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2.2 작은아들이 근무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과에 찾아갔다.

조직검사를 다시 해 본들 마찬가지로일 것이라는 진단에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하는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으니 의사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다른 암과 달리 완치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제거해 놓고 보자 하기에 그 자리에서 입원날짜 잡고 보낸 일주일, 참으로 지루하고 긴 시간이었다.

2013.12.8. 일요일 오후 입원실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자 옆 침대 환자가 자기는 쓸개가 터져 입원했는데 위암에 간암까지 발견되어 두 달째 입원 중이라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물기에 갑상선 암이라 해서 왔다고 하니 갑상선은 일주일이면 딱을 치고도 남는다고 그 병은 완치될 수 있으니 아무 것도 아니란다. 의사보다 더 시원한 처방에 일단은 기분이 좋았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손목동맥에서 피를 뽑는데 어찌나 아픈지 혼절할 뻔했다.

별것 아니라는 병실 동료들의 말에 위안을 받으며 금식을 하고 하루 밤을 자고난 이튿날 아침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드디어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었다. 밀려가는 침상에서 복도 천정의 형광등을 바라보니 스쳐가는 불빛이 왠지 처량해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 가 다시 수술실 복도를 지날 때쯤 어느 강의 예선가 감명 깊게 듣고 내 의식에 아로 새겨진 명언 한 구절이 생각났다. “중요한 일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급한 일에 쫓길 수밖에 없다”는 말, 이런 때 쓰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사 제일 중요한 일이 건강이란 말을 곱씹으며 수술실에 도착하자 좀 춥다는 느낌이 들고 나처럼 누워 있는 환자가 여럿이 있는 듯하였다. 결눈으로 내 옆에 마스크 쓴 사람들 5, 6명이 보이는데 싶더니 몸 하나 간신히 올라갈 크기의 수술대로 나를 옮겨놓고 두 팔을 가지런히 허리춤에 꼭꼭 붙이고 나자 머리맡에서 있던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은? 생년월일은? 뭇 때문에 왔지요? 흔들리는 이는 없나요? 하고 묻는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끝나고 누군가가 내 입안을 들여다보며 이치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OK라고 말하자 입과 코를 덮는 플라스틱 마스크가 씌워지고 이내 땅이 내려앉는 것 같더니 내 목숨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3시간 30분이 감쪽같이 흘러갔다.

그렇게 나 모르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내가 어딘가에 누워있다는 느낌이 들자 내 보호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마누라와 작은아들 얼굴이 보였다. 병실로 올라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뭘 묻는 것 같은데 대답은 할 수 없었다. 병실에 올라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 하나의 목숨을 백지수표로 맡기게 하는 마취라는 의술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은 어쩔 생명의 의식 속 개념이고 살아 있다는 것은 결국 제 시간을 스스로 자각 하는 일이며 시간이야 말로 살아있는 것들이 누리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수술 받는 동안 내 육신과 영혼이 일시 분리됐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영혼과 육신이 그 상태로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몸은 이미 죽어 있었을 그런 전혀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한 신기한 경험을 했다.